

## 재택사가 편안한 사회의 조건 (우에노 지즈코,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이주희 역, 2022)

양 난 주\*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3.4%를 차지해 2018년 유럽연합 회원국가 평균인 33.9%에 근접해졌다. 1인 가구가 52%를 차지하는 스웨덴이나, 40%가 넘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 불과 30년 전인 1990년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는 9%를 차지할 뿐이었다. 그동안 네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현재는 혼자 사는 다수가 청년층이지만 머지않아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럴 만도 하다. 2050년엔 고령자가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 전망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마치 정해진 미래목표처럼 들릴 지경이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오래 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 기대수명은 62.3세였고 1990년엔 71.7세였지만 2020년엔 83.5세로 늘었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7년 더 산다. 인간 수명의 이러한 변화는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인류가 얻게 된 혜택이라 여긴다. 그러나 20년이나 늘어난 노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 제도와 인식의 변화는 많이 더디다.

사회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화와 고령화의 속도와 파장이 개인의 체감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현재, 사회정책 연구자에게 가보지 않은 사회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감지하는 민감성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사회과학적 민감성

---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 어떻게 키워질 수 있을까? 과거 질서와 규범의 익숙함에 대한 반란, 아니 적어도 그 현재적 적실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싹틀 수 있지 않을까.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거나 “혼자 죽는 게 뭐가 나쁘죠?”라고 묻는 목소리는 노년기를 빈곤과 질병, 고독과 무위라는 4고(苦)가 지배하는 시간으로 당연시하던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 일본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우에노 지즈코가 쓴 에세이집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일본에 사는 72세 노인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생활과 죽음에 대해 다루는 책이다. 우에노 지즈코는 1994년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가져온 여성 생애주기의 다변화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을 분석하여 ‘공동 거주’와 ‘혈연’이라는 가족정체성(family identity)에서 이탈하는 일본 가족들을 드러냈다.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자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변하는 현실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연구는 혼자 사는 삶과 자유로운 개인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인정과 옹호를 담았다. 2007년 혼자 사는 여성들에 보내는 글을 모은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독신 남성의 삶과 노후에 대한 <여자가 말하는 남자 혼자 사는 법>, 혼자 살며 맞이한 노후의 간병과 의료, 임종에 대해 다룬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이 그것이다. 변화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을 위해 우에노 지즈코는 변하지 않는 통념과 관습과 제도를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제 그 비판적 시선은 모두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죽음의 문제에까지 이르렀다.

이 책은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 연구와 저자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 첫째는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시설은 더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 누구나 결국은 혼자가 되며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 죽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넷째, 치매 노인도 혼자 살 수 있다(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녀와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노인보다 혼자 사는 노인이 근심도 적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 필요라기보다 사실 가족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냐며 치매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을 못 참는 것은 가족이지 노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죽음의 순간에 누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자고 말한다.

이 책은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9%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가족책임주의라는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70대 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편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일본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과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권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문제를 가족의 시각이 아니라 노인 당사자의 시

각에서 조명해야 하며 노인복지에서 노인이 수혜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인구고령화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30년, 40년의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이런 사회에서 결국은 누구나 혼자 살게 되는 시기를 맞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설계될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꼽는다. 장기요양제도의 열렬한 지지자다. 노후의 위험은 자녀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거동하지 못하거나 치매가 걸렸을 때도 혼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치매에 걸려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자고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중도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그 중도 장애 안에는 불편한 몸만이 아니라 불편한 머리와 마음도 포함되며 이는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고령이 된 부모와 자녀의 동거는 더 이상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2004년 38.6%에서 2020년 20.1%로 줄었다. 이제 65세 이상 노인 가구 열 가운데 둘은 혼자 살고 다른 둘은 자녀와 같이 살며 여섯가구는 노인부부가구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모두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도 아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같이 사는 노인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 생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진단도 들린다(김세진 외, 2021). 노인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이유도 달라졌다. 과거엔 자녀가 따로 살기 원해서, 자녀가 결혼해서라는 답변이 높았지만 2020년 조사 결과 노인의 자립성이 강화되어서라는 답변이 2/3를 차지했다. 노인가구 관계망도 변화하여 자녀와의 접촉 횟수는 점차 감소하고 동년배(형제자매, 친구, 이웃)와의 연락과 교류가 커지고 다양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독거는 고립이고 동거는 안심이라는 생각을 벗어난 현실 사례는 자꾸 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에서 독거는 서비스 수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찍이 2000년대 중반부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유사한 지원사업들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변화했다. 노인에게 방문형 재가사업을 실시하면서 왜 독거를 기준으로 삼았을까? 독거노인은 고령 위험,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어있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높은 집단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비독거노인은 같이 사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가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과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가 노인의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

지 않고, 다른 사회활동도 없으며, (이와 같은데도 생활하는 데 경제적 지장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돌볼 만큼 건강하고 해당 노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들어맞는 가정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모두 위험하여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듯 배우자와 자녀와 사는 노인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사회적 지원을 중단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노인이라면 혼자 살건 배우자와 살건 자녀와 살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화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노년기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보편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돌봄 제공을 제도화한 시기가 일본 2000년, 한국 2008년이다. 노인장기요양은 재가서비스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시설과 병원에 편중되어있고, 이러한 시설서비스는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용 유인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재가요양이 적절하다고 판정된 3등급 아래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많이 있다. 우리나라 병원 병상의 44%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도 경증환자가 중증보다 더 많고 입원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감사원, 2019). 2018년 현재 요양병원 환자의 31.1%를 차지하는 인지장애군 환자의 대부분은 치매노인이다.

우에노 지즈코는 시설과 병원 이용은 노인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급여 이용의 주된 결정주체가 노인 본인인 경우는 8.6%에 불과하고 자녀나 손자녀가 68.8%, 배우자가 1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나 외, 2019). 독거노인에 비해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석재은, 이기주, 2017).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구 복지국가에서 일찍이 주창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건,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방향이라는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건, 또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건, 모두 그 근본 정신은 같다고 본다. 불편해진 신체와 정신을 가지게 된 사회구성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이 그전처럼 최대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에노 지즈코는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는 책을 통해 '독거'와 '재택사'가 피할 수 없으며 사실 나쁘지도 않다는 점을 급진적인 논조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이 한 마디만 덧붙이고자 한다.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죽은 노인을 담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살아생전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돌봄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노인의 건강과 돌봄과 안전을 지원하는 그물망 같은 돌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혼자 살다 혼자 숨을 거둔 노인 앞에서 결코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 강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감사원. 2019.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실태 감사보고서.
-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이기주. 2017.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37(4):5-42.